

고1  
공통국어2  
해설

## 2026 고1 공통국어2 해설 | 3(1)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 읽기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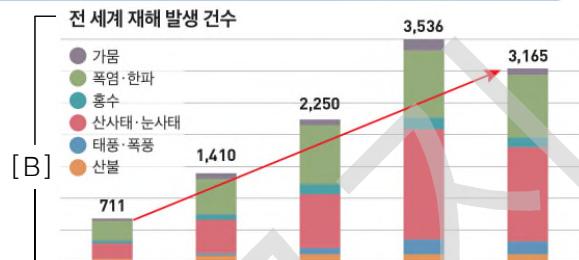
## 예상 출제 유형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 읽기」 단원은 주제 통합적 읽기의 필요성과 방법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러므로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 및 필요성,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 지문으로 제시된 <더워진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일까?>와 <탈탄소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대한 내용 이해와 글쓴이의 관점, 글의 서술 방식을 묻는 것도 출제 요소이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지구 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으니 무더위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 평균 기온 상승 폭은 지난 수십 년간 1도에 불과하며 그것이 곧 폭염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폭염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후와 악기상(惡氣象)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열 수송과 물 순환 혹은 수문 순환의 변화를 시작으로 폭염과 한파뿐만 아니라 폭우(호우), 폭설(대설)이나 태풍과 해일 등 각종 자연재해 특성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극한 기후 및 악기상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 점점 더 심각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 특히 과거의 기후에 적응한 지역에서 이상 기후가 나타나면 대비도가 낮아 종종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한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는 인재 피해 규모를 훨씬 웃돌며, 실제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구 환경의 과학적 변화 원인을 파악해 기후 재앙에 대한 대비도를 빠르게 높이지 않으면 인류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머지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다.



▲ 세계 기상 기구(WMO),  
<자연재해 발생 현황 분석 보고서> (2022)

폭염, 한파, 폭우, 폭설, 가뭄, 산불, 태풍, 해일, 홍수,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 피해 규모 증가는 심각한 환경 오염과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식량 생산에도 차질을 가져오고, 곳곳에서 식수를 비롯한 여러 자원 부족에 직면하게 만들어 자원을 사이에 두고 국가와 사회 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바뀌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는 점이다. 인류가 지금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지구상 생물종의 4분의 1은 절멸하고 말 것이다. 이미 현재의 기후 변화로 매일 100종 이상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생물종의 서식지에 기온 등의 환경 조건이 바뀌면 생물은 생존을 위해 보다 적합한 환경 조건을 찾아 이동한다. 빠르게 서식지가 바뀌고 있는 각종 동식물의 이동만으로도 인류는 코로나19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감염병 충격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이처럼 기후 변화는 단순한 지구 온난화를 넘어 전반적인 지구 환경을 변화시켜 지구를 거주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의 범위를 넘어 인위적 기후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 인간 활동이었으니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인간의 몫이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인류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를 떠날 능력도 그럴 자격도 없다. 특히 지금의 기성세대는 기후 변화를 인식한 첫 세대이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세

대이다. 화석 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 에너지 상용화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각종 교통 수단과 경제 활동을 위한 산업 방식을 뿌리째 바꾸어 ⑦ 탄소 문명을 새로 만들어야만 한다.

또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육상과 해양의 자연 생태계를 회복해야 하며 무엇보다 기후 변화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높여서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건강과 지구 환경 문제뿐 아니라 기후 문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육식 위주의 식단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모두가 채식을 하거나 비건(vegan)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류 소비를 줄여 공장식 축산 방식에 따른 지구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지구 환경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 협정을 체결하고 각국이 2050년 전후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저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탄소 순 배출량을 조기에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는 노력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 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 이론을 통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다.
- ④ 문답법을 사용하여 글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생물종의 서식지 변경으로 인해 신종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감염병이 발생한다.
- ②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후와 악기상의 증가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훨씬 더 위험하다.
- ③ 현재의 기후 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생물 종의 수가 매일 100종 이상에 달한다.

④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종류로 폭염, 한파, 폭우, 폭설, 태풍, 해일, 산불, 산사태 등이 있다.

### 3.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 ② 탄소 중립 정책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알려주기 위해
- ③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 및 국제 사회 노력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 ④ 현재 생활 방식을 벗어나 과거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내세워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 ⑤ 기후 변화로 인한 생물의 진화 방식을 설명하고 인간도 진화가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 4. [B]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 재해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 ② 지구 온난화가 야기하는 자연재해 종 가뭄 발생률이 가장 낮다.
- ③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 ④ 지구 온난화는 현재보다 과거에 자연재해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 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 5.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⑦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차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인다.
- ② 기존의 교통수단과 산업 방식을 바꾼다.
- ③ 정부에서 재생 에너지 연구를 지원하여 상용화 비율을 높인다.
- ④ 채식 식단의 장점을 강조하여 육류 소비를 금지한다.
- ⑤ 도시의 녹지와 어촌의 갯벌의 회복과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본이 기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국제 무역 질서가 기후 대응 기조에 따라 재편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후 경영을 투자 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⑦ 저는 확신을 갖고 예측합니다. 향후 10년 내 탈탄소 무역 질서가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그 까닭을 글로벌 기업, 국제 금융 시장,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영어 약자인 'RE 100, ESG, CBAM'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글로벌 기업의 녹색 전환 경영 전략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만 공급받겠다는 '알이(RE) 100'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가입한 기업은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써서 공장을 가동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알이(RE) 100'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 사슬로 연결돼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재생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려면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이라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후 경영에 전념하는 기업들을 투

자자와 소비자들이 환영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기후 리스크를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포함할 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금융 시장이 환경 보전과 사회적 책임과 같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스지(ESG) 투자'입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 사회(Social) · 지배 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금융 기관이 투자를 결정할 때, 탄소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아동 노동과 같은 사회적 불의에 태협하지 않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거나,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고요.

국제 금융 시장이 왜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을까요? 기후 위기에 대한 도덕적 책무 때문일까요? 물론 금융 기관과 기업들이 환경이나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호와 가치, 의사 결정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당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 혁신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 탈탄소 경쟁력을 기준으로 기업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금융 기관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서는 물건을 사지도 않고, 돈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국가 간 탄소 비용의 차이를 조정하겠다는 정책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질서 자체를 탈탄소를 기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인데요, 유럽 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입니다.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 비용과 유럽 밖에서 유럽 연합에 수출하려는 제품에 매겨져 있는 탄소 비용의 차이를 조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수출 물량 11%가 유럽 연합을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 비용의 국가 간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당장 수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찬성하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기후 위기 대응책을 보니 어떠시나요? 과거에는 기업이 환경 보전 기술과 설비에 투자하면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정부의 환경 규제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죠. 하지만 기후 변화 시대,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는 근본 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부가 가치나 에너지 소비량 대비 탄소를 얼마나 적게 배출하는지를 측정하는 ⑤ 탈탄소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으니까요. 탈탄소 경쟁력이 곧 산업의 기후 경쟁력이고, 이것이 모여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멍니다.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에 더 크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기후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히면서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가능성 있습니다. 무엇보다 'RE 100, ESG, CBAM'의 삼각 파고 속에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탈탄소 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민하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죠.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6.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경제 무역 질서가 변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국제 무역 질서를 제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책을 비교·대조하고 있다.
- ④ 탈탄소 무역 질서를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며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제 무역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7. 이 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② 이에스지(ESG) 투자가 탄소 중립에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 ③ 국제 기업들이 '알이(RE) 100'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 ④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을 찬성하거나 도입하려는 국가는 어디일까?
- ⑤ 한국 정부가 서둘러 탈탄소 국가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 8. ⑤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RE 100', 'ESG', 'CBAM'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 ② 선진국들의 기후 위기 대응책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 ③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기업이 운영할 수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 ④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킨 책임이 큰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 ⑤ 탈탄소 경쟁력이 곧 산업의 기후 경쟁력이고, 이것이 모여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 9. 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탈탄소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을 잊게 만든다.
- ② 국제법으로 탈탄소 경쟁력이 필수임이 명시되었다.
- ③ 탈탄소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 ④ 탈탄소 경쟁력이 국가의 복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
- ⑤ 탈탄소 경쟁력을 높여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무더위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이 글의 화제인 ‘기후 위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기존 이론을 통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는 기후 위기의 문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A]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저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으나, [A]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지 않다.

### 2. 정답 ②

이 글의 1문단에 따르면 ‘사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후와 악기상(惡氣象)의 증가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정답 ③

이 글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 노력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②, ④, ⑤는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다.

### 4. 정답 ①

[B]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극한 기후와 악기상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글쓴이의 말을 뒷받침한다.

② [B]에 지구 온난화가 야기하는 자연재해별 발생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2000~2009년에 비해 2010~2019년 구간에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글쓴이가 [B]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④ 지구 온난화가 현재보다 과거에 자연재해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B]를 통해 알 수 없다.

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지는 [B]를 통해 알 수 없다.

### 5. 정답 ④

이 글에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이자고 말하고 있으나 모두가 채식을 하거나 비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⑤ 이 글에는 탈탄소 문명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 에너지 상용화 비율을 높여야 하며 교통수단과 경제 활동을 위한 산업 방식을 바꿔야 하며,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육상과 해양의 자연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6. 정답 ④

이 글은 RE100 선언, ESG, CBAM을 차례대로 설명하며, 변화된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이 글은 경제 무역 질서가 변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은 국제 무역 질서를 제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책을 비교·대조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제 무역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 7. 정답 ②

이 글에서 이에스지(ESG) 투자가 탄소 중립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① 4문단에 의하면 환경 보전과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기후 경영에 전념하는 기업들을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환영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7문단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찬성하거나 도입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9문단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심화, 국제적 비판, 경제적 충격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8. 정답 ⑤

8문단에 경제가 돌아가는 근본 원리가 바뀌어 탈탄소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으며, 탈탄소 경쟁력이 곧 산업의 기후 경쟁력이고, 이것이 모여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②, ③, ④는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9. 정답 ③

8문단에서 탈탄소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으며, 9문단에서 우리나라가 탈탄소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 경우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②, ④, ⑤는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10. 정답 ②

2문단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① 1문단에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본이 기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후 경영에 전념하는 기업들을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환영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4문단에서 “ESG”란 환경(Environmental) · 사회

(Social) · 지배 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금융 기관이 투자를 결정할 때, 탄소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아동 노동과 같은 사회적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경영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미입니다.’라고 하였으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제품을 수입할 때 국가 간 탄소 비용의 차이를 조정하겠다는 정책 흐름으로 실제 국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11. 정답 ⑤

(가)와 (나)를 읽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어떤 글이 더 자세하게 제시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이나 <보기>에 의 읽기 목적에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기후 위기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읽는 것은 <보기>의 목적에 적합하다.

② (나)에서 제시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탈탄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을 파악하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은 <보기>의 목적에 적합하다.

③ (가)와 (나)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글을 읽는 것은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으로 적절하다.

④ (가)와 (나)를 비교하여 글쓴이가 어떤 관점으로 글을 작성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으로 적절하다.

#### 12. 정답 ③

(가)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자원 갈등이 심화되거나 생물 다양성 감소 및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인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②, ④, ⑤는 적절하다.

#### 13. 정답 ③

ㄱ.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다룬 글이다. 따라서 두 글에 나타난 관점의 차이를 비교하며 읽으면 주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

ㄷ.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으로 각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